

민주 장외투쟁 동력 벌써 약화?

천안집회 최고위 6명 중 4명 불참, 의원 참석률도 부진

19일 'MB 독재심판 광주·전남대회' 투쟁 기폭제 기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민주당이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확산에 따른 시민 참여가 저조한데다 당내 동력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9일 구 전남도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독재 심판, 광주·전남 결의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장외 투쟁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5일 민주당은 천안회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충남도청 이전 예산 문제 등을 이른바 '영남예산'과 대비시키면서 중원 민심을 공략했다.

순환규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이전에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500억 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 정부가 충청도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전·충남북 증액 예산을 다 합쳐도 형편예산 증액보다 적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의 주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제재 및 사퇴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외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이런 표면적인 강경 분위기와 달리 각종 일정이 많은 연말에 추위까지 계속되면서 벌써 장외투쟁의 동력이 약화되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도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박주선 최고위원 등 4명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 썰렁한 모습이 연출됐다.

여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장외투쟁 참석률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회투쟁 출정식이었던 지난 14일 인천 집회에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데 이어 이날 천안 집회에서도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특히, 확산 등으로 인천과 천안 집

회에 일반 당원 및 시민 참여가 각각 300~500명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 결의대회를 기폭제로 삼아 장외 투쟁의 동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결의대회에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을 총집결시키는 한편 1만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 세 과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보여왔던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강행 처리 사태를 계기로 임계점

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장외 집회 참여율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도가 크게 저조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지역 모 의원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상당하지만 확산 등으로 장외집회 참여율은 기대 이하"라며 "광주·전남지역이 민주당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시민 및 당원들이 참여가 높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형님예산 원천 무효” 진보신당 광주시당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 30여명은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및 ‘형님’예산 원천 무효, 서민복지 예산안 복구”를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野 “MB, 폭력의원에 격려전화… 제대로 된 나라냐”

김성희 “입원 위로 전화”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주먹으로 가격해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에 직접 “수고했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안 처리되던 날 밤 (인도네시아·말레이

시아 순방차) 비행기에 타시기 전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순환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예산안 무효화’ 결의대회에서 “국가 원수라는 분이, 일반인 같으면 구속감인 폭력

국회의원한테 ‘예산처리에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 발언은 대통령이 예산안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당시 인도네시아 출국 직전 서울공항 대기실에서 김 의원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위로전화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괜찮으나, 그동안 애썼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한나라당 안 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권 전체가 조폭집단 같은 문

화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진석 정무수석으로부터 제가 다쳤다는 보고를 받고 ‘괜찮으나’고 위로의 전화를 해준 것”이라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외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인도네시아 출국 직전 서울공항 대기실에서 김 의원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위로전화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괜찮으나, 그동안 애썼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호남고속철 나주역·무안공항 경유해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의 노선 선정을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5일 제 2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의 광주~목포 구간의 노선과 관련,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모두 경유해야 한다는 ‘호남고속철 나주역·무안공항 경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병(나주 1·민주)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 설명회”에서 제시된 광주~목포 구간의 4개 대안 노선에는 나주와 무안공항을 모두 경유하는

노선은 빠져 있다”면서 “고속철 통과가 지역사회의 이익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나주·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는 대안노선으로 ▲1안은 애초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반영, 고시된 노선(48.6km·2조3200억원) ▲2안 나주역을 경유하는 노선(50.9km·2조1000억원) ▲3안 나주역을 경유하는 노선(64.9km·3조1400억원) ▲4안 나주역을 경유하고 함평에서 무안공항으로 직선 노선으로 연결되는 노선(76.1km·9700억원) 등 4개가 제시됐다. 1안은 광주~

목포간 소요시간이 13분으로 가장 짧고 2안은 17분, 3안 19분, 4안 21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경제성 및 고속철 기능을 따질 게 아니라 고속철 경유로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와 무안공항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해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한국교통학회 회의실에서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노선 선정에 관한 노선선정평가위원회의 2차 회의를 연 뒤 이날 말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년 대선후 정치 없다는 각오로 정권교체 임해야”

광주 방문 유시민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권연 구원장은 15일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국가와 국민이 위협된다”라며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정치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권교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시간간담회를 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경제와 안보,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가 헌법과 역행하고 있으며, 민심은 이명박 정권을 떠나

고 있다”며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권이 권력욕 때문에 정권을 잡기보다는 한나라당이 한 번 더 집권하면 국민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2012년 4월 의회권력 교체에 이어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민심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정권교체는 이뤄졌다”라며 “아권은 이제 정권교체 요구

에 대한 민심에 화답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 후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 “2012년 총선뿐 아니라 대선에서 야당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하고, 아권 전체 뜻을 모은 정책 연대와 함께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야당의 망명적인 민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시당 사무처장 오병현

전남도당 사무처장 이진

야3당, 박희태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3당은 15일 새해 예산안과 정경법안 여당 단독 처리와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과 징계안을 통해 “박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의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 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정경법안을 직권상정,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

나라당 편에서 서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이와 함께 이번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동의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는커녕 소관상임위원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5일 광주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오병현(46) 중앙당 민원법률 국장을, 전남도당 사무처장에는 이진(45) 중앙당 당 대표 비서실 팀장을 임명했다.

신임 오 처장은 장성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조직부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으며, 신임 이 처장은 광주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 대표실 공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2012년 정권창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국 16개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정인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처럼 좋게 보이게 해준다. 허벅지 밑에서부터 허벅지 끝까지 보드랍고 말랑말랑한 피부 촉촉한 이쁜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 키는 1m50이 되며 색시하니 꿈이 생겼던 것 같았다. 분홍색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별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몰이로 불타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12월 4일

새롭게 OPEN 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2가지 섹션 4!

무경성공 120%

최진희

12월중 출연예정

입장료 무료!!

롯데클라빅

금남전자상가 지하층 롯데백화점 후문쪽

노래하며 춤추는 뮤직홀 “카라”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 할인합니다!!

(유지시스템 인테리어 최신시설완비)

단체예약 100명 가능!! 노래방 대형룸4개

동구 대인동 우체국 신청사 인근 예약문의 | 010-6727-3966

★ 사례금 100만원 ★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지매가 심하고, 반백 짧은 스포츠형 머리, 분홍색 환자복 착용(목 뒷부분에 연락처번호 있음), 맨발 또는 양말 차림, 왜소한 편, 베이시색 점퍼(추정), 말(대화)하기 좋아하심.)

성명: 박연택(남/78세)

실종 일시: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추정

실종 장소: 광주 북구 생용동

신고자: 010-3605-8400

요양원: (062) 571-0129, 572-0129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